



산뜻한 오후와 붉은 단풍을 자랑하는 가을이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카네자카에서는 일주일 동안 열리는 여름의 끝 축제가 가을의 시작을 알렸다. 축제의 장대한 마무리로 수백 년 동안 가슴 벅찬 장관을 연출해 온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면 키리코는 언제나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다. 키리코의 어머니는 시마다 가문의 가장이었던 소지로 시마다의 아들들에게 검술을 가르치고, 아버지는 그에 필요한 검들을 제작했던 만큼, 키리코 역시 시마다 성을 빈번하게 방문했었다. 어린 시절에는 여러 해 동안 성의 발코니에서 마치 마법처럼 폭발하는 색상의 향연을 경외감에 사로잡혀 바라보곤 했다. 그때 그녀 곁에는 시마다 가문의 아들들이 함께 서 있었다. 언제나 사명으로 가득한 미래를 바라보던 한조, 그리고 시마다 가문의 하인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을 때면 몰래 사탕을 그녀에게 가져다주던 겐지까지. “이 도시에서 가장 멋진 풍경이야.” 시마다 가문의 장남이 했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도 이미 오래전 일이었다. 시마다 가문은 벌써 십 년도 더 전에 사라졌고, 그들의 성에는 새로운 주인이 살고 있었다.

“이 불꽃놀이가 올해의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키리코는 료타와 노부토, 사쿠라와 함께 인파에 뒤섞여 마을로 돌아가며 말했다.

“누가 알아? 정말 아닐지도 모르지.” 료타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료타는 고잔 라멘에서 식탁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최고의 일자리라 할 순 없었지만, 종종 흥미로운 대화를 엿들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알아낸 정보는 모두 료타와 친구들이 좋은 (약간은 불법적일 수도 있는) 목적에 이용하곤 했다. 그들은 시마다 가문이 실각한 후 카네자카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범죄 조직에 저항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시마다 가문이 물러나며 생겨난 권력 공백을 갑자기 나타난 하시모토 가문이 채우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후로 십여 년이 흐르는 동안, 이 지역을 옥죄 그들의 손아귀는 점점 더 억세지기만 했다.

하시모토에서 벌어들이는 돈 또한 밀수품 거래를 비롯한 고약한 일들의 더러운 결과물이었다. 지역 병원에는 언제나 이 가문과 반목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환자들이 몇 명씩 입원해 있었다. 관광객들에게는 이 마을이 일찍 문을 닫는 것이 전통 때문이라고 안내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시모토 가문이 들어선 후, 어두워지면 카네자카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료타와 친구들은 자기들이 공공 기물 파괴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키리코는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분노만큼은 옳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들 무리는 하시모토 요새에 그래피티 낙서를 하고, 창문을 깨뜨렸다. 그리고 딱 한 번, 엄청난 용기를 냈던 날은 하시모토 가문이 멋대로 마을 주민에게서 빼앗은 가게로, 공공연히 암시장 거래처로 이용되고 있는 하시모토 가문의 주점 토라 노 스미카를 털기도 했다.

료타는 맹세했다, 머지않아 친구들과 함께 진짜 공격을 할 거라고. 강력한 공격을 할 거라고.

키리코는 그를 믿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기회뿐이었고, 그건 키리코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왔다.

료타는 노부토를 통해 이틀 후 가장 가까운 항구에 무기 화물이 입항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사쿠라는 항구 창고에서 화물 하역 일을 하는 삼촌을 만나러 갔을 때, 삼촌이 주 출입구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동안 시선을 돌리는 척만 했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무기는 하룻밤 동안만 항구에 머무르고, 아침이 되면 그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

키리코와 료타, 노부토, 사쿠라는 몸을 숨기고 아무런 저항 없이 하역장 출입구에 접근했다. 물론 키리코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비밀번호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했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달빛조차 없던 밤은 갑자기 날카롭고 환한 빛으로 뒤덮였다.

“물건은 어느 구역에 있어?” 키리코가 물었다.

“675번이야.” 료타가 말했다. “사쿠라가 거기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 일단 저 조명부터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카메라를 없애거나.” 키리코는 쿠나이 한 쌍을 들어 가볍게 돌린 후, 건물 꼭대기에 있는 카메라를 가리켰다.

일행은 안도의 미소를 교환했다. 키리코의 능력이야 다들 잘 알고 있었다.

“완벽해.” 료타가 말했다. “처리해 줘, 키리코. 우린 그쪽 구역으로 가 있다가, 네가 돌아오면 문을 열게.”

일행은 흠어진 후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잊지 않고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키리코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여우신이여, 절 인도해 주세요.*

부드러운 꼬리가 몸을 스치듯 따스한 애정이 느껴지고, 머릿속에 하나의 형상이 떠올랐다. 그녀는 눈을 떴다.

여우신이 답했다.

은은한 빛을 흩뿌리는 영적 형체가 가까운 건물 꼭대기에 서서, 달빛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개 숙여 인사하며 키리코에게 함께 달리자고 했다.

키리코는 싱긋 웃으며 마주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벽을 향해 도약한 후 우아하고 빠르게 벽을 타고 올라갔다. 여우신은 이미 지붕 가장자리를 따라 달리고 있었다. 키리코는 여우를 따라가며 잠깐 시선을 돌려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다. 그리고 쿠나이를 들어 빠르고 정확하게 던졌다. 카메라 하나가 부들부들 떨다가 빠직, 소리를 내며 잠깐 빛나더니 이내 꺼져 버렸다. 여우신은 건물에서 뛰어내렸고, 지면을 향해 천천히 내려갔다. 키리코는 여우가 착지할 곳의 2미터 앞쪽으로 순간이동했다.

경주가 시작됐다. 둘은 별채 건물들 사이를 내달렸고, 키리코는 검을 차례로 던져 카메라를 마지막 하나까지 모두 파괴했다. 여우신이 모퉁이를 돌았고, 그때 키리코는 여우의 기척이 달라지는 걸 느꼈다.

여우신은 이제 장난기 넘치는 새끼 여우의 모습이 아니었고, 어느새 불가해하면서도 무서울 만큼 현실적인 이세계의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창고 문 옆에 하시모토 가문의 경비원 삼인조가 서 있었다. 키리코는 어머니에게 배운 걸 실행에 옮겨, 하시모토 경비원 두 명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쿠나이 자루로 한 명을 기절시키고, 다른 한 명은 정밀하게 타이밍을 맞춰 관자놀이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쓰러뜨렸다. 세 번째 경비병의 손에서 무기를 쳐냈을 때, 놀랍게도 상대는 버티고

서서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키리코는 그가 뺨은 팔을 붙잡아 끌어당긴 후, 허리를 숙여 배를 어깨로 받치며 그대로 지면에 내동댕이쳤다. 경비원은 정신을 잃었다.

키리코는 세 사람을 창고 안으로 끌어들인 후 관리인의 벽장에 넣고 문을 잠가 버렸고, 다시 가장 가까운 건물 지붕으로 순간이동하여 인근 지역에 다른 적은 없는지 확인했다. 아래쪽에서 친구들은 목표 구역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키리코는 친구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았다. 다른 하시모토의 경비원 한 명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

키리코는 가볍게 그들을 향해 달렸고, 사쿠라는 찾고 있던 화물 보관 구역 문을 열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졌는지, 사쿠라는 뒤로 물러났다.

키리코는 친구들을 추적하던 경비원의 배에 정확히 주먹을 꽂아 넣은 후 목을 때려 그대로 기절시켰다. 그는 친구들에게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완벽한 타이밍이네.” 노부토가 키리코에게 말했다.

모두의 시선이 화물로 향했다. 상자에는 하시모토 가문이 운영하는 주점과 동일하게 스타일리시한 호랑이 머리 인장이 찍혀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었지만, 워낙 무거워서 운반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일행은 가까스로 상자를 옮겨 놓았고, 이 계획을 처음 떠올린 료타가 첫 번째 상자를 여는 영예를 차지했다. 예상했던 대로 상자에는 총이 가득했다. 모두가 다채로운 무기를 엄숙하게 바라봤다.

키리코가 만을 향해 상자를 밀려고 했다. 하시모토 가문이 흐릿한 물속에서 상자를 찾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았다.

료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기다려 봐. 내가 올해는 불꽃놀이를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 그는 배낭을 열었다.

키리코는 그 안의 내용물을 바라봤다.

“그랬었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우린 여름 내내 폭죽을 모으면서 이런 기회만 기다려 왔어. 타이머까지 만들었으니,

위험할 것도 없어. 얼마나 큰 폭발이 일어날지 상상이 돼? 그러면 저 나쁜 놈들에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 수 있어!” “그래,” 키리코는 말했다. “그렇겠지.”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료타의 미소가 사라졌다. “왜 그래?”

“내 얘기 좀 들어 봐. 그걸 하기 전에, 내가 소지로 시마다 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싶어. 그분은 여름의 끝 축제가 끝났던 어느 날 밤에 나와 두 아들, 한조와 겐지에게 이 얘기를 해 주셨어.”

료타와 노부토, 사쿠라는 그녀보다 어렸기에, 시마다 가문이 카네자카 사람들과 수백 년 전 이

룩해 놓았던 관계를 기억하지 못했다. 수백 년 전, 마을 주민들은 시마다의 병사들이 계속 싸울 수 있게 쌀을 공급하고, 가문의 자랑이자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마다 복숭아를 재배했다. 시마다는 가문의 힘이 카네자카 주민들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그곳 주민들의 공물을 받는 건 물론 사실이었지만, 시마다 가문은 하시모토가 모르는 걸 알고 있었다. 눈과 복숭아나무가 결실을 맺으려면 보살피는 손길이 필요했고, 그렇기에 결국 가문이 번성하려면 카네자카를 보살피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쿠라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 얘기를 굳이 지금-?” “해야 돼.”

키리코는 이 치기 어린 무리가 어둠의 길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디디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막아서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들이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줘야 했다.

“아주 오래전, 카네자카에서는 여름의 끝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어. 매일 밤 거의 모든 사람이 집을 떠나 마을 외곽의 강변에서 장대한 불꽃놀이를 지켜봤지.

“인근 지역의 라이벌 가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여름날, 그 가문은 시마다 가문을

몰락시키고... 카네자카를 잣더미로 만들려고 나타났어.”

료타는 시선을 외면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미 아는 눈치였다.

“모두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 그들이 피운 불씨는 건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갈 터였지. 그래서 그 가문은 복숭아 과수원에 불을 붙였어. 마을 주민들의 집에도 불을 붙였고. 여우 신사까지 파괴하려고 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비하게도, 그들은 거대한 폭죽을 지키던 경비원들을 살해하고 그 건물에도 불을 붙였어.

“그때의 폭발은 그 누구도 본 적 없을 만큼 아름답고 또 가장 끔찍한 것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어. 연기와 불길, 화려한 색상과 불꽃이... 온 세상을 뒤덮었지.” “대체... 왜?” 사쿠라가 물었다. “시마다를 자극하려고?”

키리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맞설 힘이 있는 게 시마다 가문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라이벌 가문이 가진 걸 모두 빼앗고 싶었던 거야. 그들의 조직과 성, 카네자카 마을까지. 그 공격은 시마다 가문을 약화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어. 마을 주민들은 그저 부수적인 피해였을 뿐이지.”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좋아. 옳은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들 알아야만 하는 이야기였다. “그 가문은 시마다도 자기들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어. 카네자카에는 진짜로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예술품도, 귀한 물건도 없이, 그곳에 있는 건 그저 사람뿐이었으니까. 그

들은 시마다 가문도 성의 마차를 보내서 과수원이나 논이 불을 끌 거라고 생각했어. 작물은 중요하지만, 그걸 재배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라이벌 가문은 과수원에 전사들을 숨기고, 시마다 가문 사람들을 기습하려 했지.

“그게 실수였어. 시마다 가문은 그들과는 전혀 달랐거든. 시마다는 거대한 물통과 자기들 창고에서 꺼낸 식량, 의약품, 의료진을 가득 실은 마차 스무 대를 끌고 카네자카에 달려왔어. 시마다 가문의 후계자들도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지휘했고. 마을 주민들이 구조된 후, 시마다 가문의 전사들과 주민들은 함께 과수원으로 향했어. 모두가 함께한 덕분에 다른 가문의 병사들을 수적으로 압도했지. 그들은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침입자들도 손쉽게 처리했어.”

키리코는 소지로가 예의 그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아들들에게 하던 말을 떠올렸다. *이게 이번 일의 교훈이다.*

*시마다 가문의 의무. 우린 우리 백성을 보살핀다. 그들이 우리를 보살펴 주니까. 그들이 굶주렸을 때, 우린 식량을 나눠야 한다. 그들이 다쳤을 때, 우린 치료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도시가 온통 불타고 있을 때, 우린 그 불을 꺼야 한다. 지도자란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기생충과 다를 게 없어.*

그녀는 료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금 하시모토가 카네자카를 탄압하는 방식도 그와 다를 게 없어. 과거에 시마다 가문의 라이벌들은 우리 축제와 불꽃놀이,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얼마나 하찮고 자기들은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는 수단으로만 이용했지. 이제는? 하시모토 가문은 우리 가족들을 폭행하고, 우리 상점을 통제하고, 우리 거리를 점령하고 있어.”

그녀는 연민 가득한 눈빛으로 료타를 바라봤다. “이런 게 폭발하면 하시모토의 총이 파괴되는 정도로 끝나진 않을 거야. 이 지역에 온통 불이 붙을 수도 있어. 도시 전체가 타 버릴 수도 있겠지. 우리 이웃들이, 우리 친구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료타는 아랫입술을 깨물고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시마다 가문이 완벽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특히 말년엔 더더욱 심했고. 하지만 우리는 우선 이게-” 그녀는 료타가 든 가방을 향해 손짓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 생각해 봐야 해.”

료타가 마침내 그녀와 눈을 맞췄다. “우리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겠지... 하지만 하시모토 가문과 다를 게 없다는 사실도 보여줄 테고.”

키리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카네자카 사람들이 두려워할 이유를 더 만들어선 안 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시모토 가문에게 겁을 줘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야. 내 생각엔, 얼굴 없이 그

림자 속에 숨어서 공격해 오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보다 더 무시무시한 무력 시위는 없을 것 같아-

“유령... 아니, 요괴처럼 말이지.” 료타가 대신 말을 뱉었다.

일행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키리코는 친구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떠오른 것을 보았다. 마음속에서, 여우신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느껴졌다.

“일단,” 사쿠라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총들은 그냥 만에 던져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료타는 폭죽으로 가득한 배낭을 턱으로 가리켰다. “이건 어떻게 하지?”

키리코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승리를 기념하는 데 써야지.”